

엄홍길, '눈폭풍' 속 히말라야 미답봉 처음 올랐다



▲ 한국-네팔 수교 50주년 기념 양국 합동 등반대장으로 히말라야 미답봉 주갈 히말라야 원정을 지휘 중인 엄홍길 대장. 사진=주갈 히말라야원정대

한국-네팔 수교 50주년 기념 히말라야 원정에 나선 '한국-네팔 우정 원정대 2024'가 히말라야 미답봉 등정에 성공했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산악인 엄홍길(64) 대장이 이끄는 원정대는 이날 오후 6시55분 주갈 히말라야 정상을 밟았다.

엄홍길휴먼재단(UHF), 대한산악구조협회(KARA·회장 노익상), 네팔등산협회(NMA) 합동으로 구성된 한국-네팔 원정대는 기상 이변과 매일 불어닥친 눈폭풍과 눈사태, 낙빙(落氷) 등 갖은 시련 속에서도 인내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등정에 성공. 한국과 네팔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특별한 이정표를 남겼다.

원정대는 지난 27일 한 차례 정상 등정에 나섰다. 정상을 불과 200여m 남긴 채 초강력 눈폭풍을 만나 정상 문턱에서 중단하는 아픔을 겪었다. 엄 대장은 "좌절하지 않고 반드시 다시 등정에 나서 성공하겠다"며 대원들을 격려했다. 그리고 정상 등정 실패 6일 만에 끝내 정상에 섰다.

엄 대장은 "이번 원정은 하루하루 날씨와의 전쟁이었다. 봄인데도 동계 등반으로 착각할 정도로 추위와 매서운 눈폭풍이 매일 몰아 닥쳤다"며 "주갈 히말라야 등정 성공은 한국과 네팔 수교 50주년을 맞아 히말라야 신이 양국에 주신 큰 선물이다. 신께서 다시 한번 등정을 허락한 것은 양국 외교가 앞으로 50년 아니 100년 더 관계 발전을 이루라는 특별한 메시지를 준 것이다"고 반가워했다.

엄 대장은 지난 2007년 로체(8400m) 등정을 계기로 고산(6000m 이상) 등정을 중단했지만, 올해 한국과 네팔 수교 50주년을 맞아 17년 만에 등정에 나서 의미를 더했다. 이번 등정지는 네팔 정부가 60여년 만에 처음 공개한 등정지라 애초 루트를 만들어 가야 하는 등 고난의 연속이었다.

결국 원정대는 기상 이변과 눈폭풍이 몰아닥치는 악천후를 극복하고 K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등정에 성공해 한국과 네팔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특별한 이정표를 남겼다.

NBA 선수 경험 없는 젊은 감독이 일냈다



▲ 지난 3월 26일 뉴올리언스 펠리컨스와의 원정 경기 중 마이크 데이그놀트 감독이 선수에게 작전 지시를 하고 있다. 사진=AP

미국 프로농구(NBA) 오클라호마시티 썬더의 데이그놀트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했다.

NBA는 지난 29일 감독상 투표 결과 데이그놀트 감독은 총 100개의 1위 표 중 89개를 받아 473포인트를 기록해 감독이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만큼 올 시즌 오클라호마시티의 돌풍은 인상적이었다. 농구 전문매체 '루키'에 따르면 팀 반동의 주역은 팀 리빌딩을 주도해온 데이그놀트 감독이다. 그는 빌리도노반 감독의 뒤를 이어 2021-2022시즌부터 팀을 맡아온 사령탑이다. 화려한 이력이 있는 감독은 아니다. NBA 선수 경험도 없다. 명장 짐 칼훈 감독이 이끌던 코네티컷 대학의 학생 매니저로 경험을 쌓기 시작해 NCAA 코치, G리그 감독을 거쳐 NBA 감독까지 단계를 밟은 케이스다. G리그 시절 3번의 디비전 우승을 차지했고 언드래프트 신화 알렉스 카루소가 당시 데이그놀트 감독의 지도를 받기도 했다.

젊은 선수들과 차근차근 성장해나간 데이그놀트 감독의 지도력은 올 시즌에 폭발했다. 오클라호마시티는 시즌 초반부터 상위권을 달린 끝에 결국 1번 시드를 차지하며 서부 컨퍼런스의 가장 높은 곳에서 정규시즌을 마쳤다.

오픈시브 레이팅 3위, 디펜시브 레이팅 4위를 기록할 정도로 공수 균형이 잡힌 팀이었다. 그들은 선수단 평균 나이 23.9세로 NBA 역사상 가장 젊은 1번 시드라는

타이틀을 얻기도 했다.

선수들의 사령탑을 향한 신뢰도 크다. 팀 에이스인 샤이 길저스-알렉산더는 "마크 데이그놀트 감독은 옳은 포인트가 무엇인지 항상 이해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발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세운 계획이 실전에서 현실로 이뤄져 이 팀을 이끌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봤다. 그를 존경하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사령탑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오클라호마시티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 가 진행 중인 가운데 3일 현재 뉴올리언스를 상대로 첫 3경기를 모두 잡아 2라운드 진출을 향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과연 감독상 수상자 데이그놀트가 이끄는 오클라호마시티가 어디까지 진출할지 주목된다.

용문루

GRAND OPENING

Authentic Chinese Korean Cuisine
Eat Good, Feel Good



홈 파티 케이터링 환영



★ ★ ★
각종 파티 및
단체 모임 환영

파티룸 10~50명 수용 가능

waiter, waitress 구합니다.

용문루 T.626.363.4961
www.yongmoonlu.com

월,수,목,금 11:30am ~ 3:00pm
4:30pm ~ 9:00pm 토,일 11:30am ~ 9:00pm

19240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91748